

투데이 칼럼

###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나

**안** '안전한 세상'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인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다. 10년 전 봄, 바다에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에는 수화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도 타고 있었다. 이 중 250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동창들과 여행을 떠난 사람들, 제주로 이사를 하던 가족도 있었다. 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인재'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선사는 화물을 과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참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40건의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3명이 숨지고 598명이 다치기도 했다. 16건의 선박사고로 12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3명이 다쳤다. 일터도 안전하지 않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8건의 '대규모 인적사고'로 74명이 목숨을 잃었고 83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정복규  
논설위원

는 3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159명이 숨진 서울 이태원 참사도 있었다. '안전불감증'이 있었다. 2015년 선박 전복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타났다. 제주 추자도에서 전남 해남으로 향하던 낚시 어선 돌고래호가 전북대 승선 인원 21명 중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 2017년 12월 3일에는 인천 영흥면 해상에서 급유선과 낚시 어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했다. 급유선 당직자가 동영상을 보느라 낚시 어선을 뒤늦게 발견한 게 원인이었다.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충북 제천 시의 목욕탕 건물에서 불이 나 29

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2층 여성 목욕탕에서 나왔는데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월 28일에는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47명이 숨졌다. 연기가 위로 퍼지는 것을 막는 병원 방화문은 열려 있었다.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 불류참고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 용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었는데 대피 유도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21년 6월 9일 광주 광역시에서는 해체 중이던 5층 건물 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건물 내버스를 덮쳤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원청에서 하청·재하청·재제하청으로 이어지는 업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드러났다. 2022년에는 참사로 2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목숨을 잃

었다. 1월 11일 광주에서 또 한 번 건물이 붕괴했다. 신축 중이던 30층 아파트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졌다. 공사는 설계도와 다르게 변경됐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이었다. 9월 6일 경북 포항에서는 차를 빼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8명이 범람한 하천 물에 숨졌다. 상류 저수지 2곳이 방류를 시작했는데도 저수지 관리인은 유관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10월 29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참사가 났다. '헬리콥터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으로 사람들이 몰렸지만 경찰과 행정 당국은 '주차장이 없다'며 방치했다.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334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수 시간 전부터 112·119 등에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12월 29일에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방을 터널에서 불이 났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다. 5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방음벽 소재가 불에 잘 타는 아크릴이었기 때문이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다. 지하 차도로 진입했던 14명이 숨졌다.

### 사설

#### 모교에 장학금 10억 쾌척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교에 역대 장학금을 내놓은 어느 80대가 있다. 주인공은 전주제일고(옛 전주상고)를 1956년 졸업한 김태술씨(88)이다. 그는 최근 모교에 10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연리 3%를 적용하면 매년 3천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평생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3천만 원'은 김씨가 2010년부터 매년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쾌척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이미 작년까지 14년 동안 4억2천만 원을 내놓았다. 전주제일고는 매년 이 돈을 10명의 학생에게 300만원씩 나눠주고 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은 '성적'이 아니라 '성실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못 박았다.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야 할 상황을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헤쳐 나갔던 기억과 고마

움이 반영된 것이다. 김씨는 도내 농촌 오지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당시 전주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가난으로 학교를 포기해야 할 처지였다. 전교 1등을 놓치는 법이 없었고 항상 성실했던 그를 안타까워했던 선생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근로장학금'으로 지원한 덕에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졸업과 동시에 한국은행에 입사했고 거기서 모은 돈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업가의 길을 걸으며 돈을 모았다. 김씨는 "파뿔했던 스승님들께 보은의 인사조차 못 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장학금에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스승님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사은장학금'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본인이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김씨에게 박수를 보낸다.

#### 경로당 어르신 생활제품 전달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지난 3월 주식회사S-CIEI, 하운수 본부장과 전주시초푸드뱅크 그리고 경로당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어르신 생활제품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S-CIEI은 6천여 만 원 상당의 에센스 화장품 1,500개와 건강 기능식품 400상자를 전주시 초 푸드뱅크를 통해 전북노인회에 기탁했다. 이는 도내 13개 시·군 지역 350여 개소 경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로당 회원들과 경로당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이 필요하다.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경로당 내 방방시설, 가전제품 및 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일은 연중 계속되어야 한다.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쾌

적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쉼터이다. 경로당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행복한 소풍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일이 절실하다. 관내 경로당 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볼 일이다. 최근에 S-CIEI이 전달한 물품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미용과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노인화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을 전하는 어르신 친화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관 기관을 발굴하여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을 주문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독자제언

#### 분실·습득 시 유실물 통합포털 이용

관광지나 축제가 끝나고 나면 유실물이 늘어나곤 한다. 본인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게 중요하지만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물 처리절차를 알아둬야 본인 소중한 물건을 되찾을 수도 있다. 경찰관서에서는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여 신속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www.LOST112.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분실 정보 등을 입력하고 습득물 조회방법을 통해 분실품을 검색하여 조회 후 잃어버린 물건이 습득물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면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에 문의 후 물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가

습득물을 신고하면 6개월 동안 원 소유자가 반환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간 이후 습득자가 3개월 동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습득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당하게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물건을 습득하였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유실물 처리절차를 알아두어 유실물 신고와 조회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www.LOST112.go.kr)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박규선고창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경감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카네이션 쥐고 행진하는 포르투갈 여성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 50주년인 지난 25일(현지시각) 리스본 리베르티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는 한 여성이 카네이션을 움켜쥐고 있다. 붉은 카네이션은 포르투갈이 1974년 4월 25일, 48년 만에 파시스트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한 카네이션 혁명의 상징이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